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發行 崔 主 鎔
編輯 金 相 文
印刷 金 相 文

發行 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서울特別市江南區 瑞草洞182
電話·直通 (556) 2444
(462) 7552

• 銀行지로番號 : 7500875
•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非 賣 品



◇ 7代 權重輝



◇ 6代 尹日善



◇ 5代 崔奎南



◇ 4代 崔奎東



◇ 3代 張利郁



◇ 2代 李春昊



◇ 8代 申泰煥



◇ 9代 劉基天



◇ 10代 崔文煥



◇ 11代 韓沁錫



◇ 13代 尹天柱



◇ 14代 高柄翊



◇ 15代 權霖赫



◇ 16代 李賢宰



◇ 17代 朴奉植



◇ 18代 趙完圭



金鍾云총장 확실히 모교는 지난 7월16일 첫 直選총장을 뽑는 전체 교수들의 투표를 실시, 金鍾云교수와 金榮國교수를 최 중후보로 선출, 교육부에 추천을 의뢰한 결과 金鍾云교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19대총장 임명이 확실시된다.

새바람 불어 넣을 첫 直選총장 선거

冠岳春秋

有史以來 처음으로 教授들의 直選에 의하여 母校總長이 선임되었다. 民主化에 따라 대학에서도 總學長들이 교수의 선거에 의하여 選출되고 있는데 母校에서는 그동안 學長들의 선거는 여러 번 있었으나 총장의 直選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意義가 크다. 母校總長의 임명방식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었다. 大統領의 직접 임명에서 文敎部長官指名後敎授會의 인준을 거쳐 文敎部長官의 提請에 의한 大統領任命에서 이제 교수들의 추천에 의한 大統領任命으로 바뀌었다. 교수들의 直選에 의한 總長任命은 대학의 自律性回復를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영해 마지막 大總統의 선거방식은 각 대학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延世大學校등과 같은 敎皇選方式에 의한 선거와 母校와 같은 候補推薦委員會의 후보 추천에 따른 敎授直選方式을 들 수 있다. 母校方式은 敎育部에서도 받아들여져 國立大學校總長 選出의 모델로立法豫告되기도 했다. 敎皇選方式 選出方法은 교수 누구에게나 被選權을 인정하는 것이 특색인데 候補推薦委員會方式은 후보를 제한한데 차이가 있다.

직선제 總長에의 期待

兩方式은 일장 일단이 있다. 敎皇選出式 選出方法은 교수 누구나 立候補하지 않고도 候補對象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民主的이나 반면에 보이지 않는 選舉運動이 파열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候補推薦方式은 후보자를 추천위원회에서 嚴選할 수 있는 점에서 보다 適格者를 뽑을 수 있다는 利點도 있다. 또 추천위원회 멤버에 敎授代表뿐만 아니라 同窓會代表, 學生代表, 社會人代表까지 참여시킨다면 보다 넓은 社會共同體의 支持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大學校의 경우 敎授代表만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學生會나 同窓會의 불만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候補者 2명을 쓰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過半數획득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批判도 있다. 또 陰性的選舉運動이 행해졌고, 出身高校에 따라 票가 분산되었고, 候補가 本部補職者에 치중되었다는 등 批判도 있었다. 그러나 選舉結果는 일관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이는 두사람이 모두 總長經歴者이고 學內行政에 밝기 때문이다. 金鍾云候補가 최고 票를 한 理由는 그가 敎務處長 經歴者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國務會議은 金鍾云교수를 母校總長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大統領이 임명하게 되었다. 신임 金鍾云總長의 임명을 직선으로 축하하면서 母校 발전에 새 轉機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사실이지 이제까지의 大學 總長들은 政府의 임명제였기 때문에 敎授의 意思보다는 政府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많았다. 특히 5.16 軍事政權이후에는 總長목숨이 파리목숨처럼 되어 在任期間이 1년에 불과한 總長조차 있었다. 4년의 임기를 다 채운 總長이 오히려 例外的이 기까지 하였다. 다행히 趙完圭총장은 4년의 임기를 다 채웠을 뿐만 아니라 大學의 발전과 自律化를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였다.

신임 金鍾云총장은 趙完圭 재임시에 初期副總長을 하였고 敎務處長, 敎務處長, 人文大學長을 역임한 분이라 學內行政에도 밝고 교수의 支持를 받고 있어 大學의 自律性高揚과 대학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金總長의 최대 課題는 서울大學校를 世界의 大學으로 雄飛시켜야 하는 것이다. 研究機材가 나후되어 있고 그마저 운용할 豫算이 없어 많은 人材들을 科技大學에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財源擴充을 꾀해야 할 것이다. 교수의 處遇改善, 學生福祉施設의 확충도 큰 課題라고 하겠다.

新任總長의 임명을 환영하며 當然 同窓會名譽會長으로서 동창회 발전에도 기여해주기를 당부한다.

韓國人의 意識과 各 國의 傾向·特 徵

1. 餘暇時代의 到來
餘暇活動의 意識과 各 國의 傾向·特 徵

여가(餘暇)의 意識은 197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여가라는 말이 낯설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는 여가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단순히 놀이나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健全한 餘暇文化의 정착

2. 韓國人의 餘暇意識과 基本課題

韓國人의 餘暇意識은 197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여가라는 말이 낯설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는 여가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단순히 놀이나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3. 各 國 餘暇의 傾向·特 徵

各 國 餘暇의 傾向·特 徵은 197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여가라는 말이 낯설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는 여가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단순히 놀이나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관광-레저 이젠 生活의 한 部分

秩序문란·環境과 汚穢위·過消費 삼가야



安 鍾 允
(55년 法大卒·漢陽大 觀光學科 敎수)

여가(餘暇)의 意識은 197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여가라는 말이 낯설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는 여가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단순히 놀이나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47일 勞動을 하면 되고, 나머지 2일은 18일 동안 여가시간이 될 것이다. 여가는 觀光餘暇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가는 18일 동안 여가시간이 될 것이다. 여가는 觀光餘暇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가는 18일 동안 여가시간이 될 것이다. 여가는 觀光餘暇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가(餘暇)의 意識은 197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여가라는 말이 낯설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는 여가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단순히 놀이나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餘暇)의 意識은 197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여가라는 말이 낯설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는 여가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단순히 놀이나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餘暇)의 意識은 197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여가라는 말이 낯설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는 여가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단순히 놀이나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뱀탕 곰쓸개소동은 國家的 망신... 量보다 質 향상에 관심 가질때

여가(餘暇)의 意識은 197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여가라는 말이 낯설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는 여가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단순히 놀이나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餘暇)의 意識은 197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여가라는 말이 낯설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는 여가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단순히 놀이나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餘暇)의 意識은 197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여가라는 말이 낯설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는 여가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단순히 놀이나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여가라는 개념은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것들이 「건강교실」의 주된 내용이다. 건강교실은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교실은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교실은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교실은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교실은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교실은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양제이기부 강화법



許鳳烈 (67년 醫大卒·母校교수)

영양제이기부 강화법은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교실은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교실은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過勞삼가고 충분한營養섭취를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교실은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교실은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교실은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교실은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교실은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교실은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캐나다教室

—金 恩 典 (57년 師大卒·母校교수)

캐나다의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교실은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교실은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교실은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교실은 건강을 위한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濕氣 조심하고 清潔 유지해야

필터링 光線조절기능, 撮影효과 높여줘



◇ 偏光 필터를 사용하면 유리창의 反射光도 없앨 수 있다.

습기를 조심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 효과를 높여주세요. 습기를 조심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 효과를 높여주세요.

Blue (靑色) 靑色, Yellow (黃色) 黃色, Orange (靑色) 靑色. Blue (靑色) 靑色, Yellow (黃色) 黃色, Orange (靑色) 靑色. Blue (靑色) 靑色, Yellow (黃色) 黃色, Orange (靑色) 靑色.

新刊

▲清冠의 뜨락

- 師大국어과同門 第3文集

지난 76년 모교 師大 국어과 동문들이 모여 발간한 제1문집 「冠岳의 메아리」 제2문집 「清冠有情」(1984)의 뒤를 이어 세번째 간행된 동문문집. 고희를 넘은 동문으로부터 대학을 갓나온 동문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으로 엮어낸 이 문집은 단순한 동문회의 친목이나 결속의 차원을 넘어 격조높은 삶의 실상을 담고 있다. 특히 국어교육의 최전선에서 우리교육문화 발전에 열과 성을 기울여 온 동문들의 和音이 잔잔하게 어우러져 있다. <한샘출판회·346쪽·비매품>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編

同학회의 李燦(51년 師大卒) 회장등 모교 지리학과출신 동문들을 중심으로 엮음. 87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한국전통지리학 연속강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정선해 수록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볼수 있는 지표의 사물과 현상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분석하며, 또 우리가 의미를 미처 부여하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로 軟性사회의 모습을 그려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모두 6개의 장으로 나뉘어진 글들을 통해 때로는 안타까이 가슴 졸이고, 때로는 감감하여 한숨내쉬며 이 사회를 지켜보는 사회학자의 마음의 단편을 읽을 수 있다. <나남출·239쪽·3천8백원>

▲현대 항공수송론

- 李泰元 著 (61년 法大卒· 대한항공기획담당부사장·本會理事)

항공분야의 전문경영인으로 30여년동안 저자가 쌓아온 경영비법과 경험을 기술한 국내 최초의 항공사 경영총서. 항공수송의 본질에서 항공공해에이르기까지 항공수송에 관한 거의 전분야를 망라해 황무지나 다름없던 20년전의 한국민항을 오늘날 세계속의 항공사로 군림하게끔한 우리 항공인들의 현주소를 발견할수 있다. 풍부한 자료와 원발의 찾아보기 등 꼼꼼한 편집이 돋보인다. <서울컴퓨터프레스출·902쪽·1만9천5백원>

▲우리경제 어디로 가고있다

- 郭秀一 著 (63년 商大卒· 모교경영대 教授)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분석 보다는 우리 생활속에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경제문제를 쉽게 풀어쓴 경제평론집. 그간 고속

한국고전문학의 한장르인 詩歌문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특수성과 개별성을 밝히면서 궁극적으로 세계문학에 이어지는 우리 고전문학의 보편성을 추적·구명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詩歌가 지니는 문학적 본질을 추구함에 있어 그의 독특한 분석의 틀, 즉 언어와 형식으로서의 詩學, 인간과 삶의 측면에서의 웃음의 詩學이라는 독특한 시각으로 장르와 계층, 시

대를 넘어서는 보편성을 찾아냄으로써 한국문학이 당당하게 세계문학으로 성공할 수 있는 예술성과 객관성을 보여준다. <梨花女大출판부출·452쪽·1만원>

▲북경, 연변 그리고 白頭山

- 李丙台 著 (67년 齒大卒·大韓齒科醫史學會長·本會理事) 치과의사의 시각으로 中國을 둘러보며 접한 풍물과 간도땅

의 동포를 그리고 백두산을 오르며 느낀 감상들을 특유의 문체로 정리한 기행문. 책의 전반부에서는 중국 요소요소에서 보고 체험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후반에서는 중국 齒科界를 둘러보면서 수집한 비망록을 풀어쓰고 있다. 곳곳에 현지인들과의 대화를 직설적으로 인용, 현장감을 더해준다. <思賢閣출·252쪽·5천원>

公演

▲피아노 트리오 콘서트

- 8월 28일 호암아트홀 66년 모교 韓大 입학동기들



문용희 (Pf) · 박병훈 (Vc) · 구진경 (Vn)

로 구성된 具眞環 (뉴욕메트로 폴리탄오케스트라·바이올린) 文龍姬 (경원대교수·피아노) 朴炳勳 (KBS 교향악단 첼로제2수석·첼로) 피아노트리오는 오랫동안 유럽과 미국등지에서 수학하고 개인적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연주

자들이다. 동문 특유의 조화와 호흡을 살려 갖게되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하이든의 피아노트리오 27번 다장조를 비롯, 베토벤, 드블작 등이 연주된다.

▲서울심포니 지방순회공연

민간교향악단으로 제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통해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순회공연을 갖는다. 27일의 부산공연, 30일의 광주공연에 이어 9월 1일 전주공연에 이르기까지 젊은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의 지휘는 李鍾猷 (81년 音大李) 동문이 맡았다. 그의 이승호 (81년卒·플루트) 金炫辰 (71년卒·피아노) 禹仁澤 (82년卒·바리톤) 동문등이 협연, 다양한 레퍼터리를 선보인다.



모색하고 있다. 우리 국토를 변모시켜온 한국인의 지리사상과 한국인의 문화와 역사가 투영된 문화경관의 의미를 발견하게된다. <민음사출·334쪽·7천원>

▲부드러운 사회를 위하여

- 金璵東 著 (59년 文理大卒· 모교사회대 教授)

어동이 흐르던 80년대의 기류속에서 저자는 「부드러운 불에 부드러운 비누를 쓸때 느끼는 감촉」을 우리 사회에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으

성장을 구가했던 우리 경제가 여러가지 장애물과 구조적 모순등으로 흔들리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서있는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다가오는 2천년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 우리 생활의 관점에서 경제사회의 변화과정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답을 찾으려하고 있다. <삼성출판사출·351쪽·4천원>

▲詩歌 詩學研究

- 金大幸 著 (65년 師大卒· 모교사대 教授)

展示

- 김현숙版畵展 (86년 美大卒)

나의 자취는 손길의 움직임으로 비롯된다. 주어져 있는 모습의 시간·공간의 단편들을 재조합한 상황과 사물들의 만남으로 새로운 체험공간을 만든다. 건조한 생활의 반복속에 노동의 힘겨움을 맛보며 생겨나는 하나의 판화작품은 고됨뒤에 충전된 새로운 활력소이다. 안락함을 찾아 떠도는 사람들과 함께 온갖것들은 정신적·물질적 오염으로 부대끼고 있다. 또 닫혀진 마음으로 단절되어진 관계는 굳어져만 간다. 변화되지 않은 것들에 위안을 느끼며, 꾸밈없고 순서를 잊지않는 자연의 순리에 때로 감사한다. 생활의 쳇바퀴를 벗어난 우



• Inside IV / Aquatint / 60x40cm / 1991

리의 본연의 모습엔 무엇이 남을까? (作家的 작업노트中에서)



遺傳工學연구소 開所

모교 법전연구소로 지... 85년 설립된 유전공학연구소의 전신인 유전공학연구소가 6월 22일 개소식을 가졌다. 4·19탑파 학원단은...

19代 총장에 金鍾云 교수

國務會議의 결... 大統領 임명만 남아

모교 제19대 총장에 金鍾云(62세·57년 文理大學 英文學·前副총장) 교수가 임명되었다. 國務會議의 결... 大統領 임명만 남아



◇ 개표 광경

이날 투표에는 모교의 전체교수 1천1백31명중 1천26명의 참가. 91%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개표결과 金鍾云 교수가 6백38표, 金榮國 교수가 5백66표로 전체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했다. 최중후보로는 田浩元교수(4백49표), 李光錫교수(3백61표) 등이 있었다.

發展基金조성에 동참을

統一院·關稅庁·農漁村開發公社 등 文藝진흥회(文壇) 등 32명의 후원회 재직 중인 1백59명의 모교인원들이 1백59만원의 발전기금을 모교에 전액 기부했다.

職場단위 참여 계속

국토개발연구원·관세청·농어촌개발공사 재직동원들이 6월 28일 모교에 28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宋德虎차장(文壇)·崔...

金宗장 프로필

모교 개교 이래 교수들의 직... 19대 총장인 金鍾云은 1965년 1월 1일 개교 이래 19대 총장으로서 21년간 모교를 이끌었다.



學·處長 副總長 두루 역임

모교에 봉직하는 동안 기획실장·교무처장·인문대학장·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폭넓은 학사행정경험을 쌓았다. 19대 총장으로서 21년간 모교를 이끌었다. 1965년 1월 1일 개교 이래 19대 총장으로서 21년간 모교를 이끌었다.

연구비 1億 (5년간) 기증키로

林鎮浩등은, 医大産婦人科교실에

林鎮浩(79년 醫大卒)·마리아의원장(동명)이 모교 醫大 産婦人科 교실에 5년간 총 1억 원의 연구비를 기증하기로 했다. 89년 東大門區 新設洞에 국내 처음으로 시행된 마리아의원장(동명)이 모교 醫大 産婦人科 교실에 5년간 총 1억 원의 연구비를 기증하기로 했다.

2학기 開講 8월 21일

등록은 12~14일까지... 2학기 개강은 8월 21일이다. 등록은 12월 14일까지이다. 2학기 개강은 8월 21일이다. 등록은 12월 14일까지이다.

教授 3명 新任

모교는 지난 6월 14일... 3명의 교수님을 임명했다. 이는 새로운 임용된 교수들이다.

司法發展研 5기 수료식

6기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기 수료식을 가졌다. 6기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다.